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 컬러풀 지구촌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라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뉴스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유적토코소 가요1번지 55 바른말 고요말	1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재)	00 한영공동제작 특집 <디스커버링 코리아루드>	00 KBC 생활뉴스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재)
12	00 KBS 뉴스 12	1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화성기행(재)
1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5 VJ특공대	20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날씨와 생활
2	00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05 내꺼야 풀록 30 동물가족 체험기 외일드 패밀리(재)	00 네트워킹현장 고행이 보인다
3 00 직인직설	55 트트 생활제조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 전망대	00 SBS 뉴스 10 국회 대정부 질문
4 10 캐드나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규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지원 공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막 너 같은 딸>(재)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타빙 매가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플러스 15 KBC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턴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라동물 극장<단짝>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막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남도의 보물 100선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20 세상발견 유레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담장 우리가	00 월화드라마 <너를 기억해>	00 월화특별기획 <화장>	00 월화드라마 <상류사회>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청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5 우리동네 예능쇼	15 PD수첩	15 쌤쌤
12 30 나는 몸신이다(재)	30 독립영화관 <하하하>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놀라운 데이터>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극한집안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규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창사특집-시청자와 함께하는 세계테마기행>
07:15 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행 <왕의 진상품>
07:30 출동! 슈퍼맨(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00 당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임 <창사특집-감각의 제국>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3:05 지식채널e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2:45 리얼극장 <영웅의 열정>
08:00 당동맹 유치원	13:10 글로벌 가중 정착기 <한국에 신다>	16:45 굼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기록물 아틀라스 <일본 개항사>
08:20 두다다콩(재)	13:40 줄거운 수학 EBS MATH	17:00 WHO-위인극장	24:05 지식채널e(재)
08:35 WHO-위인극장	13:50 꼬마 철학자 휴고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8:50 굼디와 친구들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15 피터 래빗	17:45 꼬마버스 타요	
09:20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35 이밤! 스페이스 정글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율리프스 <국어 I-일짜개념>	12:10 율리프스 <국어 I-일짜개념>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A)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국어B)
01:40 " <문학-일짜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02:30 " <미적분 II>	14:50 율리프스 <문학-일짜개념>
03:20 " <수학 I>	15:40 " <미적분 II>
04:10 율리프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	16:30 " <수학 I>
05:00 뉴탐스런 <물리 I>	17:20 율리프스 평가문제집 <미적분 II>
06:00 " <생명과학 I>	18:10 2016 N제 <국어A>
06:40 " <동아시아사>	19:20 " <영어>
07:30 "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 <심주석의 수학 I>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1:50 " <문학A형>
11:00 " <수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수학5-1>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수학6-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시험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9:00 줄거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5(6)>
09:10 TV 중학 <국어1(2)>	18:40 " <수학3(3)>
09:50 " <수학1(1)>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0:30 " <역사2>	20:00 EBS 기획특강
11:10 " <국어3(4)>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 <수학2(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2:30 실천 취업가이드 <수학1(하)>	22:00 중학 중-기시험 대비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22:40 등업신공 <수학3(하)>
13:50 중학 중-기시험 대비 <과학1-1>	23:20 필독 <사회1>
14:30 등업신공 <수학2(하)>	23:40 등업신공 <수학2(하)>
15:20 만점왕 <수학3-1>	24:00 왕기초 중학 <수학4(1)>
15:50 " <수학4-1>	24:30 백점공략 <과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3일(음 5월 8일 庚午)

子	48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 없이 얻은 순이익이다. 60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후회 없는 대처를 할 수 있다. 72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84년생 필요성이 간절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78, 58
丑	49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불 만한 게임이다. 61년생 마음을 비운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73년생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항상 잊지 아니하고 머리에 새겨 두자. 행운의 숫자 : 09, 34
寅	38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험할 뿐이다. 50년생 갖추고 있어야 제 때에 활용할 수 있다. 62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다. 74년생 그런 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겠다. 86년생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행운의 숫자 : 43, 53
卯	39년생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리라. 51년생 기쁨이 보인다. 63년생 대소가 아니라 핵심 유무의 문제이니라. 75년생 사소한 것에 이끌리다보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87년생 도토리 키 재기 식이니 별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3, 271
辰	40년생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52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64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6년생 새롭게 재조명해 본다면 분명히 이로운 것과 관련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8, 69
巳	41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악재가 보이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53년생 알면서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65년생 멀리서부터 상처로운 기운이 비추고 있다. 77년생 재생 계해야 할 처지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1, 19

午	42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특이점이 보이리라. 54년생 말만 잘 하면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다. 66년생 징후가 현실화 될 수도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78년생 병문을 빌려 주니 안방까지 달라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4, 05
未	43년생 순서와 절차대로 이행해야만 자질이 없으리라. 55년생 흔들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67년생 조짐이 좋으니 분명히 기회가 일어날 것이다. 79년생 조중하 되어두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30, 39
申	44년생 알뜰한 생활 자세가 견고한 삶의 기반이 되리라. 56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어보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68년생 행운의 기운이 길게 이어져 있다. 80년생 단순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2, 49
酉	45년생 평안한 마음으로 행세를 즐기겠다. 57년생 객관화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69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점진적이야만 하느니라. 81년생 현상을 무시한다면 판도를 좌우할 만한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96
戌	46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옳다. 58년생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하다. 70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느니라. 82년생 현상이 유래하게 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0, 75
亥	47년생 격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59년생 돌리기도 두드리고 건네는 것이 안전 하리라. 71년생 흑백 논리로 따질 일이 없을 일차. 83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판국이니 변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2, 6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더위 날려버릴 노래로 신나게 흔들어요”

건강한 섹시미로 돌아온 씨스타... 세 번째 미니앨범 '셰이크 잇' 발표

“이번 앨범으로 ‘여름은 씨스타의 것, 씨스타는 여름에 준비된 가수’란 확실한 췌기를 받고 싶어요.”(효린)
여름을 대표하는 걸그룹 씨스타(효린, 보라, 소유, 다솜)(사진)가 여름 사냥에 나서며 이런 각오를 밝혔다.
22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아티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앨범 ‘셰이크 잇’(Shake It) 발매 쇼케이스에서다. 건강한 섹시미로 승부한 답답해 흥이 넘치는 멜로디, 따라 하기 쉬운 율동, 섹시 코드가 가미된 영상을 무기로 올여름 가요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단단해 보인다.
멤버들은 “히딩크 감독님처럼 우린 아직도 배고프다. 씨딩크(씨스타+히딩크)라고 생각한다”고 한끼가 웃어 보였다.
목표를 위해 히트곡 ‘러빙 유’(Loving U)와 ‘기브 잇 투 미’(Give It To Me), ‘아이 스웨어’(I Swear)를 함께 작업한 유명 작곡팀 이단옆차기와 다시 손잡았다. 이단옆차기가 프로듀싱한 타이틀곡 ‘셰이크 잇’은 흥겨운 댄스곡으로 강렬한 브라스 연주와 레트로 풍의 사운드에 후렴구의 시원한 보컬이 인상적이다.
“다 같이 신나게 몸을 흔들자”란 콘셉트가 뚜렷하다.
멤버들은 “몸을 엄청 흔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신나는 곡”이라며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쉬운 멜로디와 안무를 만든 게 우리의 기존 여름 곡과의 차이점”이라고 소개했다.
포인트 안무도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동작들이다.
소유는 “영덩이를 강조한 안무를 구성했다”며 “‘터치 마이 바디’(Touch My Body) 때는 영덩이를 털어냈다면 이번엔 영덩이를 애교스럽게 살랑살랑 흔드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다솜은 “초등학교생이 우리 춤을 봤으면 좋겠다”고, 소유는 “어르신들이 공연에서 (영덩이를 흔드는) 운동 기구를 탄다는

생각으로 함께 따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멤버들은 이번 앨범에서 ‘사악’(四樂)한 캐릭터로 변신했다고 밝혔다.
보라는 “‘사랑스러운 악녀’란 뜻과 ‘내 가지 즐거움’을 의미한다”며 “소유는 건강한 악녀, 보라는 발랄한 악녀, 효린은 섹시한 악녀, 다솜은 도도한 악녀”라고 설명했다.
‘셰이크 잇’의 티저와 뮤직비디오도 코믹 판타지 장르로 제작돼 재미를 선사한다. 씨스타는 영상에서 사랑스러운 악녀로 변신해 학교 강의실, 거리 등 곳곳에 댄스 DNA를 전파한다. 예능 대사로 꼽히는 노을의 강궁성, 안방극장을 누비는 인기 셰프 최현석, 그룹 몬스타엑스의 셔누와 원호 등이 카메오 출연했다. 최현석 셰프가 출연한 티저 영상은 코믹한 연출로 웃음을 주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효린은 “대뷔 5년 만에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다”며 “평범하게 입지 않고 조금은 멋있게 입어봤다”고 웃었다.
이 밖에도 앨범에는 대세 래퍼 기리보이가 피쳐링한 ‘애처럼 굴지마’, 래퍼 매드클라운이 참여한 ‘나쁜놈’ 등이 수록됐으며 아이코닉사운즈, 데니임, 로빈 등 실력파 프로듀서들이 힘을 보탤다.
보라는 “남자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애처럼 굴지마’의 랩 파트 작사를 했다”며 “간간이 연습은 했는데 실제로 넣게 되니 신난다”고 말했다.
효린도 “작곡은 독학을 하고 있는데 다음 앨범부터 작곡곡을 수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을 맞은 이들은 “걸그룹 서열에서 소녀시대, 투에니얼과 함께 ‘남사벽’(남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 됐다”란 취재진의 질문에 “영광이다. 누군가를 누르기보다, 개인의 발전보다 팀의 발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영화, 할리우드 강세 꺾을 수 있을까

‘암살’·‘베테랑’ 등 대작들 개봉 앞뒀

한국영화 여름 기대작이 속속 개봉일을 확정하면서 한국영화 여름 라인업의 윤곽이 잡혔다.
22일 영화계에 따르면 소박스의 ‘암살’은 7월 22일, CJ엔터테인먼트의 ‘베테랑’은 8월 5일 개봉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헐너, 캄의 기억’도 8월 개봉하기로 했으며 뉴(NEW)의 ‘뷰티 인사이드’는 8월 20일 관객과 만난다.
이로써 국내 4대 배급사가 여름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들 작품은 ‘킹스맨’, ‘어벤저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매드맥스-분노의 도로’, ‘쥬라기 월드’ 등 할리우드 영화가 끝없이 몰려와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영화는 별다른 기세를 보이지 못해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기대작들이다.
‘암살’은 ‘타짜’, ‘도둑들’을 흥행시킨 최홍훈 감독과 톱스타 전지현·이정재·하정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로 개봉한 달 전인 이날 제작보고회를 열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경성과 중국 상하이로 무대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 요원, 그들을 쫓는 정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리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그에 이어 찾아오는 ‘베테랑’은 자신만의 액션 세계를 구축한 류승완 감독이 황정민, 유아인과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행동파 형사 서도철을 비롯한 광역수사대 사람들이 의문의 사건을 쫓다가 안하무인의 재벌 3세 조태오가 사건 배후에 있음을 직감하고 그를 쫓는 이야기. 역시 15세 이상 관람가.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박홍식 감독이 만든 ‘헐너’는 캄이 곧 권력이던 고려 말기, 뜻이 달랐던 세 겹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린 영화다.
한류스타 이병헌과 전도연이 액션 사극에 출연한다는 점에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았지만, 예상보다 개봉일이 늦어지면서 배우 이병헌의 사생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병헌이 고려를 탐하는 검을 상징하는 유백, 전도연이 대의를 지키는 검을 상징하는 월소, 김고은이 복수를 꿈꾸는 검을 말하는 흥이를 각각 연기했다.
배급작의 ‘뷰티 인사이드’는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



자 우진과 그와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수(한효주)의 이야기로, 칸 국제광고제와 클리오 국제광고제에서 그랑프리상을 받은 인텔과 도시바 합작 작품을 장편 영화로 다시 만든 것이다.
우진 캐릭터를 ‘비중 있게’ 연기한 배우만 유연석, 김주혁, 이진욱, 우예노 주리, 박신혜 등 국내외 남녀 배우 21명에 이르는 독특한 설정으로 올해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도 바이어들 사이에서 주목받았다. 12세 이상 관람가로 흥행에 유리한 위치를 잡았다.
이 영화는 다음 달 개봉을 위해 이달 초 일찌감치 제작보고회까지 마쳤으나 배급사인 뉴가 맡은 다른 영화 ‘연평해전’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이유로 개봉을 2주 연기하면서 개봉이 8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